

## Chapter 15. 미국의 주로 승격

---

멕시코와의 전쟁 동안에 침략한 미국인들은 캘리포니아를 군사 통치 아래에 놓인 점령지로 취급했지만, 국제법에 따라 캘리포니아는 자치 기관들을 가질 수 있었다. 이상적으로는 미국인 정복자들이 임시 법과 규칙들을 발표할 수 있었지만, 실제로 그런 일은 부분적으로만 일어났다.

멕시코 관료제도의 흔적인 푸에블로의 시장 (alcalde)들은 주된 사법관으로도 활동했었고, 그들은 계속해서 몇가지 전통적인 역할을 하긴 했지만, 권위는 차츰 의문스러워지게 되었다. Monterey 의 임시 alcalde 로 활동했던 미 해군 군목이었던 Walter Colton 은 자신의 지위를 “공공의 평화를 지키는 수호자”라고 말했다. 미국인들이 캘리포니아 alcalde 들을 계승하면서, 그들은 이 멕시코 기관에, 동부에서 가져온 보통법 (common law)을 적용했고, 이어서 배심원에 의한 재판등과 같은 법적인 안전 장치들을 제공하는 미국 법이 과거의 절차들을 대체하도록 했다.

1847 년, Stockton 장군과 Kearny 장군 사이의 권한에 대한 분쟁 때문에, 미국의 통치에 혼란이 발생했다. 카후엔가의 항복 때까지 Stockton 이 군인 주지사로 있다가, 다음 약 50 일간 캘리포니아 주지사로 활동한 Fremont 를 지명했다. 그런데 워싱턴에서는 새로 점령한 지역들의 고위 군관리로 Kearny 장군을 임명했고, Kearny 장군은 캘리포니아에서 단호하게 최고 권한을 행사했다. Fremont 가 Kearny 의 권위에 도전했기 때문에 워싱턴에서 Fremont 에 대한 군사 재판이 열렸다. 그는 명령 불복종죄, 군대에 해를 끼친 죄, 심지어는 반역죄로 유죄를 받았다. 비록 Polk 대통령이 이 판결을 무효화 시켜 줬지만, Fremont 는 화를 내며 군대에서 사임해 버렸다.

캘리포니아의 새로운 미국인 주민들은 이제 군사 통치 기관들이 멕시코법을 따르는 것에 대해 불평하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차기 정부에 대한 권한 침해 사례들에 대해, 민사법 절차등을 통해서 불만을 표출했다. Kearny 장군의 후임 주지사로 Richard Mason 대령이 부임했는데, 그는 사람들의 불평을 알고 있었지만 군사통치를 계속했다. 그는 멕시코와의 평화 조약이 체결되었다는 소식을 듣기 며칠 전에 이미 캘리포니아를 위한 새로운 법전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불행히도 그 법은 즉시 발표가 되지 않았고, 더 많은 미국인들이 캘리포니아로 들어옴에 따라, 이주민들의 불만도 늘어갔다. 1848 년 5 월 20 일에 비준된 “이달고 조약” (Treaty of Guadalupe Hidalgo)이 멕시코와의 전쟁을 종결지었고, 마침내 캘리포니아가 미국에 할양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Mason 은 미 의회가 캘리포니아 사람들에게 미국 시민으로서의 헌법에 기초한 권리들을 빨리 부여하기를 희망했지만, 불행스럽게도 민간 지역 정부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할 정치권의 움직임은 느릿느릿하게 진행되었고, 그러는 동안에 Persifor Smith 장군이 Mason 의 후임으로 부임해 왔다.

캘리포니아는 분명히 영구적인 자치 정부를 필요로 했다. San Francisco 에서는 난폭하고, 자칭 “의회” (Legislative Assembly)라 칭한 기구가, 예전의 푸에블로에 대한 군인 정부의 권위를 인정하기를 거부하고, 부패한 alcalde 를 쫓아내 버렸다. San Jose 에서도 대규모 회의가 열렸다. 또 한 사람의 군인 주지사 Bennett Riley 장군은 주의 헌법을 제정하고, 영토를 통치할 정부를 구성하기 위한 계획을 짰 회의에 보낼 대표를 선출하려고 한다고 발표했다.

민간인 정부로의 이행에 대비하기 위하여, Zachary Taylor 대통령은 의회의 저명한 지도자 Thomas Butler King 을 자신의 대리인으로 캘리포니아에 파견했다. King 은 새 영토가 미합중국 유니온에 들어가야 한다는 사람들의 생각을 전하려고 했고, 그는 1851 년에 San Francisco 항구의 징세관으로 있다가, 후에 San Francisco 의 상원의원 후보가 되었다.

1849 년 9 월초, Monterey 타운을 굽어보는 새로 건축된 흰색 건물에서, 캘리포니아의 첫번째 헌법 회의가 열렸다. 대표자들이 캘리포니아의 헌법을 작성하려고 모였을 때, 캘리포니아는 아직 공식적으로 미국의 영토가 되기도 전에 유니온에 들어갈려고 하고 있었던 것이다.

48 명의 남자들이 헌법 회의의 대표로 선서했다. 모든 사람들은 캘리포니아의 미래에 큰 관심을 갖고 있었다. 비록 대표자들 모두가 전국적으로는 무명이었지만, 처음으로 이주했던 미국인들과 “forty-niners” 들뿐 아니라, 옛날부터 살고 있던 캘리포니오들도 포함한,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었다. 대표들은 대체로 젊었고 융통성도 있었다. 평균 나이는 겨우 36 세였고, 제일 나이든 사람 Jose Antonio Carrillo 는 53 세였다. 회의에 참석한 대표들이, 전례로 참고할만한 책들은 별로 없었고, Monterey 지역에서는 법과 역사에 관해, 기껏해야 50 권 미만의 책들이 있을 뿐이었다. 하지만, 그 책들중에는 이미 시행되고 있던 다른 주들의 헌법 카피들이 있었다.

48 명의 대표들중 8 명 이었던 캘리포니오들은 특별한 대우를 받았다. 위엄있고 대체로 인기있던 Vallejo 장군은 나중에 캘리포니아의 첫 상원의원이 되기도 했다. 또 한사람의 회의에 참석했던 캘리포니오인 산타바바라의 Pablo de la Guerra 는 Vallejo 와 공통점이 많았다. 두사람 모두 전쟁중에 미군의 포로였고, 둘다 참을성있고, 교육을 잘 받은 사람들이었다. 다른 라틴 사람들중에는 Antonio Pico, Jacinto Rodriguez, Manuel Dominguez, J.M. Covarrubias 와 잘 알려진 Carrillo 집안 사람이 있었다. 스위스 출신 이민자인 Johann Sutter 는 거의 미국인 취급을 받았다. 제일 영향력이 컸던 대표는 남쪽 대표이자 나중에 미국 상원의원이 되는 William Gwin 이었다. 캘리포니아에서의 “처음이자 마지막 미국 영사”였던 Thomas Larkin 도 다양한 집단의 사람들이 새 헌법을 제정한다는 복잡한 문제에 매달렸을 때, 자신의 지식을 제공했다.

몇몇 광부들이 노예들 옆에서 같이 일하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그들은 캘리포니아가 노예가 없는 주 (free state)로 유니온에 들어가기를 원했다. Gwin 뿐아니라 다른 남부사람들도 캘리포니아로 이주해, 많은 사람들이 Los Angeles 근처에 정착했고,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노예들을 캘리포니아로 들여오기를 바랐지만, 헌법회의에 참석한 대표들 대다수는 캘리포니아를 노예가 없는 주로 만들기로 맘 먹고 있었고, 최종적으로 그러한 관점이 대세를 이루었다.

또 다른 논쟁은 캘리포니아의 동쪽 경계에 관한 것이었다. 어떤 사람들은 캘리포니아가 Sierra Nevada 동쪽의 광대한 사막지역을 포함해야 하고, 심지어는 물몬교도들이 대세를 이루고 있는 Salt Lake 분지 까지도 포함해야 한다고 했지만, 최종적으로 Sierra 산정 바로 동쪽에 경계를 긋기로 했다. 캘리포니아의 크기를 줄이자는 이 결정으로 인해, 미국의 주로 승격되는 것을 논의할 미국 의회가, 캘리포니아 헌법을 좀더 쉽게 받아들일수 있게 되었다.

대표들이, 헌법에 자신들의 서명을 하는 동안, Monterey 프레시디오에서는 Colton Hill 너머로 유니온에 들어갈 미래의 주를 기념하는 31 발의 총이 발사되었고, 캘리포니아의 새로 채택된 대문장 (Great Seal)이 공개되었을 때, Colton Hill 바깥에 모인 관중들은 모자를 하늘로 던지며 환호했다.



대문장에는 유니온의 각 주들을 의미하는 31 개의 별들이 있고, 주피터의 눈썹에서 나온 (지혜와 武勇의 여신) Minerva 가 앞에 그려져 있는데, 이는 영토의 보호 관찰 기간을 거치지않고 유니온에 들어가는 캘리포니아를 상징했다. 그리즐리곰이 Minerva 의 발아래 웅크리고 있고, 선광기와 통을 가진 광부는 “Sacramento 의 황금의 부”를 의미했다. 강 너머에는 Sierra Nevada 산맥이 솟아있고, 위에는 아직도 캘리포니아의 표어인 EUREKA 의 전설이 새겨져 있었다.

1849 년 11 월 13 일, 일반 투표로 비준된 1849 년의 헌법은, 성장하는 캘리포니아의 기본법으로서 30 년을 견뎌냈다. Peter Burnett 가 첫번째 민간인 주지사로 선출되었을 때 Riley 장군은 사임했고, 캘리포니아는

아직 유니온에 가입은 못했지만, 어떤 면에서 보아도 미국의 한 주로 보였다.

의회는 2 명의 상원의원들을 워싱턴으로 보냈다. 한 사람은 수치스런 군법회의 회부 이후에 캘리포니아로 돌아왔던, 논쟁의 여지가 있던 Fremont 였고, 또 한사람은 Gwin 이었다. 두 사람이 미 의회에 가서, 캘리포니아의 새로운 헌법 카피를 앞에 두고 유니온에 가입하기를 요구했을 때, 남부 의원들은 이렇게 큰 노예제도가 없는 주가 생기는 것이 걱정이 되었고, 북부의 노예 제도 폐지를 원하는 의원들은 멕시코와의 전쟁후 획득한 모든 지역에서 노예 제도를 없애기를 원했다. 캘리포니아가 유니온에 가입하고자 거친 과정이 얼마지나지 않아, 북부와 남부 사이에 국가적인 규모의 폭력 분쟁을 일으키게된 것이었다.

몇주간 팍 막혀 있던 의회는 유명한 “1850 년의 대 타협” (Compromise of 1850)을 이루었고, 마침내 1850 년 9 월 9 일, 캘리포니아는 노예 제도가 없는 주로서 유니온에 가입하게 되었다. 우연히 같은 시기에 뉴 멕시코와 유타도 노예에 관한 언급 없이 공식 영토가 되었다. 비록 이 타협이 남부인들의 섭섭한 감정을 일시적으로 달래주었지만, 남부와 북부 사이뿐 아니라, 캘리포니아 내에서도 긴장을 끝낸 것은 아니었다. 겨우 10 년도 지나지않아, 이러한 원한 때문에, 유명한 남북전쟁 (Civil War)으로 치닫게 되는 것이었다.

캘리포니아가 미국의 주가 되었다는 소식이 Sacramento 에 알려진 10 월 18 일, 모든 비즈니스가 정지되었고, 와일드한 파티가 그날의 분위기를 이루었다. 동네 웅변가들이 캘리포니아가 미국 유니온의 정식 멤버가 되었다는 것을 자랑하는 것을 듣고자, 사람들은 작은 Portsmouth Square 로 몰려나왔다.

하지만, 얼마지나지 않아 캘리포니아의 남쪽과 북쪽 사이의 갈등이 미래의 수도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몇몇 타운들이 수도 후보로 참여했다. 분명히 수도 요구 자격이 있던 Monterey 와 San Francisco 에다가, San Luis Obispo, Benicia, Santa Barbara 도 사람들이 지지했다. San Jose 는 의회의 맨 첫 회기가 열렸던 곳이었고, 의원들이 밤 늦게까지 술을 마신 때문에, “Legislature of 1,000 Drinks”(술 1,000 잔 회의)라고 불리고 있었다. Vallejo 장군이 새 수도를 Carquinez Straits 를 따라 건설하자고 한 제안은 북부의 지지를 받았고, 1851 년 6 월에 San Jose 에서 Vallejo 장군이 소유하고 이름 붙인 황량한 타운 Vallejo 로 정부 기록들이 일시적으로 옮겨지기도 했다.

1853 년 2 월, 의회는 Benicia 를 세번째 수도로 한다는 또 하나의 결정을 통과시켰다. 진흙으로 지은 집들 사이에, 주로 2 층짜리 벽돌 건물들로 이루어진 Benicia 는 San Jose 나 Vallejo 보다 나은 것도 없었다. 1854 년, 의회가 그곳에서 열렸을 때, Sacramento 가 수도가 되고자 강력히 신청했다. Sacramento 는 Gold Rush 기간동안 광부들이 출발한 주 출발점이었고, 비록 고립되어 있고, 무척 더운 여름 날씨가 있었지만, 캘리포니아의 수도로서의 지위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